

## 인쇄술과 언어의 지배

성경과 과학의 전통은 필사 시대에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종교 개혁의 시대에는 이미 분기점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기술은 성서 학자에게도 자연 철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단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이 두 분야간에 벽을 두르고 양자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견제했다.

인쇄술이 대두될 때까지 '어떻게 하늘이 움직이는가'라는 과학적 질문과 '하늘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는 종교적 관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에라스무스나 코페르니쿠스도 옛날 장소의 이름을 해독하거나, 고대 기록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마다 바뀌는 성스러운 부활제의 날짜가 문제될 때에는 교회가 복음서의 진실을 축하하는 협력자로서 천문학자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인쇄술의 등장 이후 宇宙力學의 연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곧이어 달력 문제나 고대의 산술 이론을 극복하는 고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문헌학(philology)을 익히고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은 성서 연구에 차차 필요케 되는 한편, 자연의 연구에는 그 필요성이 줄어들어 갔다. 실제로 회랍어나 아랍어에 의한 다양한 표현, 중세 라틴어의 약기법, 로마자와 로마숫자의 혼동, 언어의 오용, 필사자의 실수 등으로 생기는 난점이 너무나도 잘 해결되었으므로 현대의 학자들도 필사가 수리 과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인지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의 시대로부터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시대까지는 기하학, 천문학, 광학을

익히는 것은 고전을 부활시키고, 회랍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가 되자, 드디어 자연에 관한 언어는 옛날의 언어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동식물의 여러 이름은 동일한 그림을 붙여서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게 되었고, 성좌나 대륙도 한때 통일된 지도나 天球儀에 그려져 불확실한 어원학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수표나 계산 척도는 여러 토지의 측량 기사에게 공통된 척도를 제공하게 되었다. 별개이트 성서에 이어 다국어 판이나 여러 異本이 나오는 한편, 「알마게스트 *Almagest*」의 실추에 따라, 뉴턴의 새롭고 단아하며 단순한 일반 법칙의 정식화가 행해지게 되었다. 중립적인 그림을 이용한 수학적 어휘의 발달에 따라 자료 분석을 위한 대규모 인제 확보가 가능해졌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옛 국경선을 횡단, 합의에 달할 수 있게 되었다.

갈릴레오가 원이나 삼각형을 즐겨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살리우스가 도해를 곁들여 서술한 것을 생각하면, 논문이 각 나라 말로 쓰여졌는가, 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 너무 구애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또한 복음주의 개혁자와 근대 초기의 과학자의 유사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가도 알 수 있다.

新哲學의 지지자 중에는 복음주의 개혁자와 마찬가지로 간결한 표현을 좋아하며 상대를 연기로 감싸는 듯한 표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천문학자나 해부학자가 사용하는 말은 교육받지 못한 초심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으며, 거리

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대개 이들은 '쓰지 않는 언어(*unspoken language*)'였으므로, 설교단과 인쇄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신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기독교도가 즐겨 쓰는 말과는 전혀 달랐다. 음성에 의하지 않고, 상세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는 '무언의 교사(*silent instructor*)'에 의지하게 되어 기술 문헌이 의미론적인 함정에 빠질 위험성은 적지 않았다.

'언어의 지배'는 끝났다고 1733년 폰테넬(*Fontenelle*)은 쓰고 있다. 현재 요청되는 것은 '사물(*things*)'이다. 200년 전에 이미 언어에 의한 논의는 포기되고 눈에 보이는 실물에 의한 입증이 활발해졌다. '감히 단언하건대, 무엇인가 학문의 법칙을 취해 반년간 읽거나 듣거나 하는 정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완벽히 만들어진 잘 된 도형이나 그래프를 이용하면 1주일 이내에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1531년 토마스 엘리엇(*Thomas Elyot*)은 교육자에게 그림 과정을 읽힐 것을 권했을 때 이렇게 썼었다.

인쇄술 발명 이전의 출판은 받아쓰거나 읽기라는 행위가 뒤따랐다. '주어진 과학법칙을 청취할 능력'을 익힌 筆寫文化와는 대조적으로 인쇄 문화는 '잘그린 도형이나 그래프'의 배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인쇄 문화는 학문의 세계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과 자연의 신'을 터득한 인간의 능력에 새로운 확신의 발판을 주었다.

아인슈타인의  
'인쇄출판문화의 원류'에서

## 출판저널

통권 제157호 / 1994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고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문명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뉴 에이지 혁명

원저: 물병자리 시대의 공모  
매릴린 퍼거슨  
김용주 옮김/값 9,800원

### 세기말의 엄청난 대변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새로운 시대(New Age)'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세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엄청난 탈바꿈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온 세계, 전 분야에서 소리없이,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의식 혁명의 물결—모든 낡은 바탕을 허물고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이룩될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한다!

### 새로운 세계의 열림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간관을 읽는다

1. 생명의 농염  
후쿠오카 마사노부/값 6,500원

2. 마음의 의학  
칼 사이몬의 지음/값 6,500원

3. 녹색정치  
스프레트낙·키프라 공저/값 7,000원

4. 직관의 경연

다마 멘탈비즈니스 연구소/값 3,500원

5. 세계의 공동체 마음들  
올리버 포피노 외 지음/값 6,000원

###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하는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다가오는 시대는 영적 각성의 시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정치·경제·학문·종교·예술·교육... 20세기말 인류 문명 전반에 걸쳐 몰아닥친 영적 각성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조망한다! 뉴 에이지 운동은 과연 보수 기독교인의 말대로 사탄의 선택인가, 선구자들의 말대로 인류를 암흑에서 건져낼 정신개혁인가?